

# 세계의 반도체 시장 년간 20% 급성장한다

## - 2000년에는 3,000억불 규모

세계 반도체 시장이 2,000년까지는 현재의 2배인 3,000억불 규모의 성장이 예상된다. 『일본전파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따르면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사의 프라데이 게이드 부사장은 이번 미국에서 개최된 반도체 업계의 회의에서 금후의 전망에 대하여 일렉트로닉스 전반에 걸쳐 반도체의 구성비가 향상되고 지리적시장의 확대, 세계적으로 직장환경이 컴퓨터화하고 있어 반도체업계는 금후에도 장기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성장을 계속할 것이 확실시되며 또한 95년도의 시장성장률에 대해서는 35%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게이드 부사장은 세계 반도

체시장은 과거 15년동안 연간 15%의 성장을 유지하였으며 이 베이스로는 2,000년까지는 2,750억불에 이를 것이지만 금후 20%의 고도성장 실현 가능성이 높아서 3,000억불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금후의 성장을 높게보는 이유는 4가지를 들었는데 우선 퍼스컴, 휴대전화, 팩시밀리와 일렉트로닉스 전반에 대한 반도체 구성비율의 상승을 들었다.

전자제품 전반에 대한 반도체 구성비율이 70년대 약4%에서부터 80년대에는 7%, 94년까지는 10%, 95년은 1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제2의 통신, 컴퓨터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는 중국 동구를 중심으로한 신흥시장

의 성장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직장 근무환경에서의 정보화 시설투자의 확대이다.

현재 미국은 종업원 100명당 퍼스컴대수는 평균 57대, 여타 지역으로 구주는 23대, 일본은 16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4대로 미국과 비교할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곳 시장들이 앞으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시장들이다.

특히 휴대전화 시장의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끌어 올리는데 중요한 요체임을 지적하였는데 휴대전화의 연간 성장률은 25%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최근 반도체업계의 동향을 보면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모토롤러,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LSI로직 등 미국

주요 반도체업체들의 올해 2/4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비 40%선의 신장률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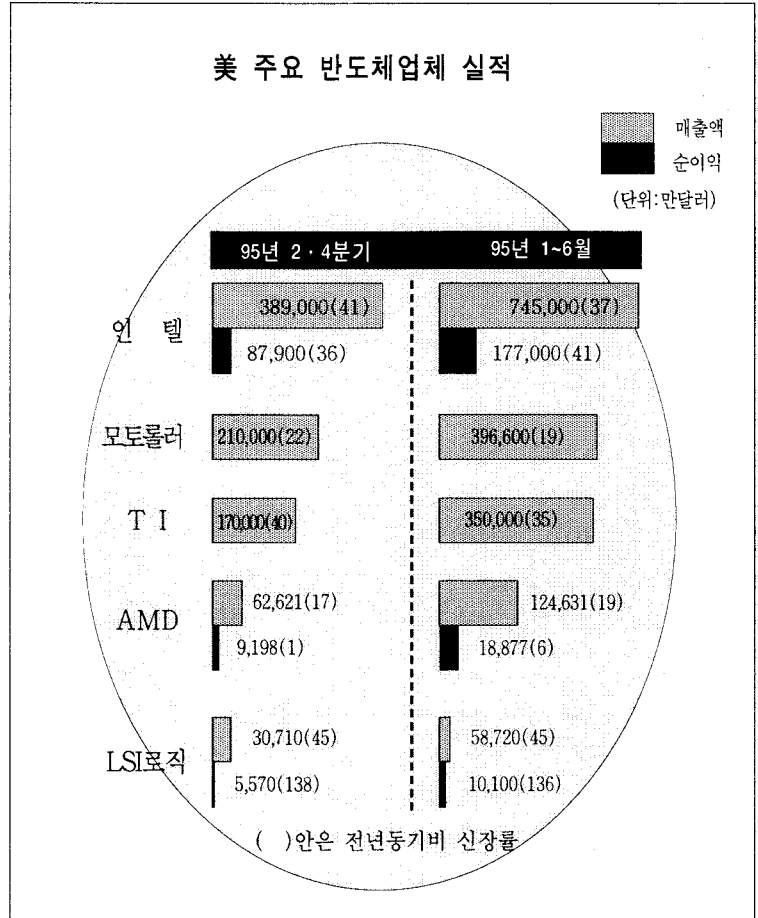
미국 반도체업체들의 이같은 실적호조는 고성능 MPU(마이크로프로세서)나 DSP(디지털시그널 프로세서), 고집적 ASIC(주문형 반도체), 통신용 LSI(고밀도집적회로), 플래시메모리 등 반도체 전반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전파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인텔은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38억9천만달러로 전년동기비 41% 증가했으며 순이익도 36% 늘어난 8억7천9백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상반기중 매출액은 37% 증가한 74억5천만달러, 순이익은 41% 늘어난 17억7천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중 펜티엄의 출하량이 전년동기실적을 웃돌아 486에서 펜티엄으로 점차 이행되고 있음이 뚜렷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인텔측은 펜티엄의 출하량이 3/4분기에는 486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토롤라의 반도체부문은 RISC(명령어축소형컴퓨팅)형 프로세서, 아날로그 로직디바이스, 고속SRAM, MCU(마이크로컨트롤러) 등의 호조에 힘입어 2/4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비



22%증가한 21억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매출실적은 39억6천6백만달러로 19% 증가했다.

TI사는 DSP와 MSP(믹스드 시그널 프로덕트)제품의 강세로 2/4분기 매출액이 40%나 증가한 17억달러로 나타났으며 상반기 매출액은 35% 늘어난 35억달러, 순이익은 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MD는 플래시메모리와 LSI 등의 호조에 힘입어 이 기간 매출이 17% 증가한 6억2천6백

만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이익은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1% 증가에 그쳤다. 상반기 매출액은 12억4천6백만달러로 19%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억8천8백만달러로 6% 상승했다. LSI로직은 코어웨어 제품과 고집적 ASIC의 판매증가에 힘입어 이기간 매출액이 전년동기비 45% 늘어난 3억7백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순이익도 5,500만 달러로 138%나 증가했다.

■ 자료제공/일본 『전파신문』